

봉축 칼럼



주경 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고등학교 시절 집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도선사 불교학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당신도 불자이지만 학생 신분으로 부처님께 절을 다니는 아들이 혹시라도 출가의 뜻을 품을까 염려한 어머니께서는 그리 흔쾌해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궁금하셨던지 한 해 부처님오신날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다니는 절에 등을 달기 위해 오셨다.

당시 축원문을 등독한 신도만 10만 명이 넘는 큰 절인 도선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산 아래 큰 길에서부터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고, 넘쳐나는 연등으로 장관을 연출했다. 보통 때 절까지 버스로 10분정도면 오는 거리를 2-3시간이나 걸려서 오신 어머니께서는 이

# 부처님을 마음에 단단히 품자

미 사람들에게 밀리고 치여서 무척 지저분했다.

당시 100여명이나 되는 학생법회의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다. 당신 아들만 절에 다니는 줄 알았다가 남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던 모양이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걱정하던 출가의 염려도 많이 접으셨다.

먼저 학생법회에 나가면 작은 형에게 이끌려 처음으로 절에 가게 되었다. 법당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범우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자연의 싱그러움과 산사의 그윽한 분위기가 그리고 생기 넘치고 활발한 학생들의 법회활동은 무척이나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 피아노도 없이 입으로 함께 따라 배우던 찬불가도 신이 났었다. 항상 단정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빛나는 얼굴로 법문을 하시던 법사스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대입준비로 절에 자주 가지 못했던 나에게 법사스

님이 책을 한권 빌려주셨다. 일본학자 마쓰야 후미오가 짓고 이원섭님이 옮긴 현암사에서 발간한 '아함경이야기'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완전히 빠져들었다.

탁자에 앉아계신 금빛 장엄한 부처님이 아닌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을 책 속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쉬려고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대하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구나, 정말 사람이셨구나!" 크게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처님이 마음의 스승이자 고향으로 자리를 한 것이었다. 이후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제자들과 역대 큰스님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깊은 진리가 담긴 스님들의 법문도 더 잘 이해가 되고 스님들의 평생의 삶도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출가해 학생법회에서 법문을 할 때도 가장 많이 했던 법문들이 학생시절 들었던 법문들이다. 내가 청소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끝없이 관심

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찰법회에서 받았던 그 감동과 행복을 청소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산해 삭발을 하고나니 은사 스님께 서 몇 가지 당부하셨다. 그중 한 가지가 "스님들 보고 증노릇 할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증노릇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처음 그 말씀을 들 때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생활하면서 곧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넘치거나 부족한 면이 있는데,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음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면 갖은 회의와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래 종단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이 불교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는 훌륭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더욱 단단하게 부처님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부처님 법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가르침이 세상

社說

## 꺼지면 안될 참회와 지계의 연등

어김없이 부처님오신 날을 기리는 연등 불빛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수놓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밝힌 연등들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뜻을 찬탄하는 흥겨움보다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참회하는 물결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터진 승려 도박 사태는 2주가 지났지만 조계종은 사후 해결에 부심 중이다. 일괄 사퇴한 부실장 스님들에 대한 교체와 중앙 기관들의 잇따른 참회가 연등회 연등축제를 1주일 앞두고 이뤄졌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승가 위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현안 해결과 지계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원로 스님과 중앙총회, 교구본사, 중앙종무기관까지 나선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도 계율 전공 교수아사리 긴급 좌담회를 통해 현대사회 청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종단 교육기관에서는 학인 스님들에게

계율과 불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두 수행자의 기본인 지계가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고민들이었다.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은 위기다. 안으로 굽고 굽어진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모두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을 방만하게 여긴 결과다. (사분율)에서 부처님은 계율을 정한 이유로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고, 현재의 실수를 없애고, 미래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한다. 그런 이유가 모두 10가지에 이른다.

분명 한국불교는 실수를 했고 현재 지속과 참회 중이다. 이제는 미래의 실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중 첫 번째가 '지계'다. 지계는 불교의 목적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참회와 지계의 계기로 삼자.

## 한국불교 이제 글로벌이다

5월 19일 연등축제가 성대히 봉행됐다. 조계사와 종로입대는 오방색의 물결 그 자체였다. 이날 만큼은 피부 색깔과 국적은 문제가 안됐다. 미국인, 중국인, 독일인, 일본인 모두가 하나였다. 'We are the world'였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던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이후 첫 행사라 관심이 컸다.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들의 축제 참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점도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미국, 스페인, 일본 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단체 접수를 받은 것도 한 몫 한 것 같다. '종교 제의적' 성격과 '민중 축제적' 성격이 공존하는 전통문화유산인 연등회가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 축제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연등회는 박제된 문화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축제이자 살아 있는 한국불교문화다. 전통성과 현대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연등회의 세계화는 물론 미래 비전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또한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사업에 대해 문화재청과 정부 관련부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더하라고 밝혀 기대가 크다. 부처님오신날 불축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연등회 외국인 모니터링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연등축제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큰 매력 요소로 꼽았다. 이렇듯 우리의 연등축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연등회 뿐 아니다. 간화선도 영산제도 사찰음식도 자비나눔도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일화'를 위해 가일층 정진하자. 지금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부처님께 올리는 참회 편지



남지심 소설가

지금도 5월 15일 새벽, 아직 여명이 가지지 않은 하늘을 보며 '부처님!' 하고 조용히 불러 봅니다. 당신이 잠시 모습을 나두었던 지구의 동쪽 나라 대한민국은 당신이 오신 것을 봉축 드리며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좀 더 자비로워지기를, 모든 생명이 평화로워 지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작은 꿈들이 성취되기를 염원하며 등 하나씩을 당신 앞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는 기쁨에 가슴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황사 먼지가 곁에 핀 꽃잎을 덮어 버리듯 각종 마스크에서 터져 나온 흙먼지가 우리가 켜 아름다운 등의 불빛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당신도 저희들처럼 망연자실해 계십니까? 아니면 중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안

# 당신앞에 등 하나씩 걸었습니다

타카우으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각종 마스크에서 스님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온 다음 날, 가사장삼을 수한 많은 스님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당신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담은 신문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지 못하면 업이 청정해지지 못하고, 업이 청정해지지 못하면 삶이 청정해지지 못하며, 삶이 청정해지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잠시 망각하고 산 죄를 참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스님들을 바라보는 저의 재가자들도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불교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죄는 우리 재가자들에게도 똑 같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들 역시 청정한 계율 속에 삶을 가꾸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들을 외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승가와 재가, 양쪽 다 청정한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을 때 비로소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 불교는 권력 승들이

왕권과 결탁해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 수많은 스님들이 결사체를 만들고 신도들이 그 스님들을 외호하면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 왔었지요. 그런 결사체들이 없었다면 불교는 부패의 늪에서 회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진리인데 진리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우여곡절 속에서 그 빛을 잃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불교가 교단 내외로부터 반축과 야유를 받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진정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올곧게 지켜내고 당신의 가르침을 올곧게 지켜낼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위에 든 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또 진실하게 임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흠먼지가 몰아쳐도 조계사 부근에 가면 수많은 스님들이 종종 길을 치며 불구사를 드나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심을 봉축하기 위해서지요. 저는 그런 스님들을 바라볼 때면 늘 가슴 한결이 뭉클해집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이 품고 있는 도량을 가꾸기 위

해 노력하는 스님들, 그런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선조 500년 동안 그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찰을 지켜와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축을 사고 계신 스님들도 저는 그런 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전후의 어린 나이에 당신 품속을 찾아와 그 옷 벗지 않고 30~40년을 살아오신 스님들, 부처님 부디 그 스님들을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민던 악독한 제바달다도 전생에 당신을 깨우쳐 준 선지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바달다가 한량없는 겁을 지낸 뒤 천왕어래란 이름으로 성불하여 20 겁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향사사만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라한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수기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후에 떠오르는 태양은 찬란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공기도 청명합니다. 세상에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당신의 가르침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저희들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당신을 영광되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전부이신 저희 부처님이시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용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우 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